

#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추계대회 보고

제 69 회 추계대회 실행위원장 츠즈키 코우이치(토호쿠복지대학)

2021 년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69 회 추계대회는 구두발표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웹(web) 형식으로 진행한 첫 대회로서 지난 9 월 11 일~12 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햇수로 3 년에 걸친 대회 개최 검토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아 누차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임원 및 사무국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 분들의 조언과 격려로 700 여명이 회원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무탈히 대회가 개최된 것은 실행위원장으로서는 감사와 함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웹 시스템으로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 월 11 일은 학회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 월 12 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학회사무국이, 구두발표와 특정과제 섹션은 개최교인 토호쿠복지대학가 운영하였고 포스터 발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E-포스터로 실시하였습니다.

개회에 앞서 연구지원위원회의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온 디맨드(on-demand)’로 개최하였습니다. “연구 주제의 확장, 심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한 회원, 현장 종사자이자 대학원생인 회원, 교수로서 근무를 막 시작한 회원으로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회원분들과 코멘테이터(commentator), 그리고 사회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첫째 날 오후에는 학회상 수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니시자키 미도리 씨와 히라노 타카유키 씨는 학술상을, 다나카 토모코 씨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후 개최교 기획 심포지엄이 “죽음에서 생을 바라보는 복지-생과 죽음으로 사회복지를 재고하다”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살아가는 의미를 묻다-‘죽으면 모든 것이 끝’을 논박하다-”를 주제로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우즈노미야 테루오 씨의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보고, 지역의 자살예방활동 실천 보고,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종교가의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보고에 대한 코멘테이터의 논평 후에는 소셜워크의 전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해 나갔습니다. 보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코멘테이터, 그리고 기조강연자이신 우즈노미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둘째 날에는 구두발표와 특정과제 섹션,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학회기획 섹션이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의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사회복지연구 · 교육활동”을 주제로 ‘온 디맨드’ 형식으로 개최되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소셜워크연구의 사례 보고와 소셜워크교육 등 국제비교연구 등에 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정과제 섹션에서는

젠더(gender)와 재해복지를 주제로 각각 4개와 5개의 발표가 있는 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을 고민하다-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세계관 탐색”을 주제로 오후에 진행된 학회기획 섹션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세계관, 그리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것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구두발표는 총 83편(한국 및 중국 참가자 발표 포함)중에서 82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좌장 및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3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를 통해 몇 가지 향후 과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 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연구활동이 크게 제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연구에서 연구활동이 제한된 영향이 대회에 여실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회원 간의 정보교환과 교류의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년 대회에서는 대회장의 여러 장소에서 환담을 나누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우 섭섭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셋째로 대회의 준비나 당일의 대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그다지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 개최되었던 몇몇 다른 학회의 개최방법을 본 학회의 대회운영방식에 참고 및 적용하면서 대회운영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 나아갔습니다. 개최교의 물리적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웹으로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참가비를 대폭 줄이면서 교통비를 포함하여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거주지가 멀거나 젊은 연구자, 대학원생에게는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서 회원 간의 정보교환과 친목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쉬운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웹 방식이라도 실제로 많은 회원 분들이 참가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확보했다는 점과 다양한 섹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지방의 대회장이라도 문제없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 의미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대회였습니다.

# 2021 년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수상에 대해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1 년도 학회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술상(단저부문)에 니시자키 미도리 회원과 히라노 타카유키 회원이, 장려상 (단저부문)에 다나카 토모코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식은 제69회 추계대회 첫날인 2021년 9월 11일에 개회식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자 분들의 수상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 학술상 (단저부문)

니시자키 미도리 (쿠마모토가쿠인대학)

수상작 : 『소셜워크는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제도적 인종차별과 미국사회복지사(史)』(勤草書房, 2020년 8월 25일 간행)

이번에 출저 『소셜워크는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제도적 인종차별과 미국사회복지사(史)』에 학회상(학술상) 수여라는 영예를 안겨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오랜기간 많은 망설임과 함께 길을 헤매며 진행해 온 연구 성과입니다만,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미국의 우수한 기록물 관리사 (Archivist)의 도움 없이는 이뤄내지 못했을 연구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서 수상작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사회 안에서 주변화 된 마이너리티(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와 소셜워크와의 관계를 시계열에 따라 확인함으로써 소셜워크의 이면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소셜워크의 사상과 철학은 전문직 단체나 전문직의 WASP 문화가 배경이 되어 인종을 넘어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면이었습니다.

이같이 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인위적 분류는 인종 뿐만 아니라 민족, 성별, 성적지향, 사회계층, 장애의 유무 등에도 미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stereotype)화가 소셜워커의 선입관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슬쩍 바꿔서 대처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국사회복지사(史)의 쓴 경험들로부터 우리들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서의 출판 후의 일입니다만, #BLM 운동에 촉발되어 전미소셜워커협회는 결국

2021년 6월, 흑인, 미국선주민, 일본계 미국인 등의 마이너리티가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투쟁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 의의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셜워커의 실천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정말로 해방되어 있는 것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실천하는 소셜워커에게 스스로 본인의 차별의식을 자각하고 극복하면서 사회의 부조리와 투쟁해 가는 소셜워커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의 강평에서 지적된 과제 ① ‘소셜워크계(界)’ 의미의 명확화, ② 1960년대 이후의 미국사회복지사(史), ③ 소셜워크 연구·교육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극복에 대한 노력, ④ 기독교 동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제들을 포함하여 본서에서 충분히 논하지 못한 부분이나 더욱 심화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 학술상 (단저부문)

히라노 타카유키 (일본복지대학)

수상작 : 『지역복지 매니지먼트 : 지역복지와 포괄적 지원체제』(有斐閣, 2020년 3월 25일 간행)

일본사회복지학회의 학술상은 두말할 필요없이 출판된 서적 『지역복지 매니지먼트 : 지역복지와 포괄적 지원체제』에 수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역복지의 체계화를 모색해 온 일련의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의 하나로서 지역복지의 체계화를 구상한 전저(前著) 『지역복지추진의 이론과 방법』(2008)이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학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을 때 심사위원 분들에게 다음 저서를 기대한다고 전해들은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수상된 서적은 지역복지 체계화의 연장선 상에 있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필 활동의 목적이 수상에 대한 재도전이 아닌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은연 중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년 학회상 심사위원을 의뢰받았을 때 자서가 학회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이유는 일본지역복지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회의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경험하면서 일본사회복지학회 내의 지역복지연구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학회상 중에 지역복지연구 그 자체에 대한 수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면에서 지역복지(매니지먼트)의 개념을 묻는 저서가 평가받은 것은 그 책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지역복지연구에 대한 평가, 특히 체계성에 대한 평가로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복지연구방법의 모색에 대한 저의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연구활동으로서의 필드워크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심사결과에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당초에는 필드워크를 부제로 달아 내용을 구상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지역복지연구에서는 선행연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선행실천과의 만남과 그 필드의 조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의 실현에는 많은 운이 필요하며 그러한 운들이 따랐던 연구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지역복지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지역복지 매니저와의 만남이 지역복지의 체계화를 지지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복지에는 다양한 이력(履歷)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수상 저서에 이르게 된 이력으로서 지역복지 체계화에 대한 많은 탐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수상이 또 하나의 귀중한 연구 이력이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장려상 (단저부문)

다나카 토모코 (붓코대학)

수상작 : 『지적장애인 가족의 빈곤-가족에 의존하는 케어(care)』(法律文化社, 2020 년 4 월 10 일 간행)

이번에 일본사회복지학회 장려상을 수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상 대상이 된 책은 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케어하는 우발적인 일이 왜 한 여성의 삶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학부시절의 소박한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의해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케어의 역할이 왜 현대사회에서 빈곤에 이르는 리스크로 기능하는가를 가시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에 걸쳐 케어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특히 제 1의 케어러(carer)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태어난 후 생애에 걸쳐 케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 안에서 어머니들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친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라는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또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아직 표출되지 못한 목소리가 담긴 생각들을 저서에 얼마나 담아내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고 싶습니다만, 수상이라는 형태로 평가받은 것은 하나의 큰 격려입니다.

수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나날이 가혹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든 장애인 케어러 분들과 그 가족들의 곁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계조사 등도 현지의 실행 위원회에서 가족 및 전문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관계자 분들과의 협동적인 관계성이 불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삶의 고충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조사에 협력해 주신 여성분들 앞에서 연구자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 분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기반이 된 것은 홋카이도대학대학원 교육연구학원에 제출한 박사논문입니다.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연구를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 마츠모토 이치로 교수님과 전 동료이자 부심사위원의 수고를 맡아 주신 스즈키 츠토무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배님들, 연구 동료 분들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監訳

姜 民護 (同志社大学社会学部社会福祉学科助教)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客員研究員)

## 翻訳

朴 東民 (立教大学大学院コミュニティ福祉学研究科コミュニティ福祉学専攻博士課程後期課程)

## 번역 감수

강 민호 (도시사대학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번역

박 동민 (릿쿄대학대학원 커뮤니티복지학연구과 커뮤니티복지학전공 박사과정)